서울예장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참석자 전원 PHF 약정, 클럽 전원 PHF 도전 선언
9월 18일 프리마호텔

서울예장로타리클럽(회장 최신일) 장세호 총재 공식 방문이 9월18일(화) 오전 7시 30분 프리마호텔 6층 노블레스 B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재공식방문주회 직전 클럽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이 함께 한가운데 최신일회장의 클럽의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클럽협의회에서 클럽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활성화와 봉사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식방문에서는 최신일회장의 공식환영사와 황순신 지역대표의 총재님 약력소개가 있었으며, 장세호 총재는 스피치를 통하여 로타리 활동의 필요성과 앞으로 로타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화답으로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은 적극적으로 로타리 사업에 동참 할 것을 결의하는 마음으로 주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PHF를 약정 했으며 클럽 전원 PHF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총재 방문 선물로 로타리 강령이 기록된 타종을 선물 하셨고 클럽에서는 박은숙 작가(서울예장RC 회원)의 작품으로 제작된 벽시계를 총재님께 선물 하였습니다.

이번 장세호 총재님 방문을 통하여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은 더욱 발전하고 활동적인 클럽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한강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오랜 역사와 전통의 강한 힘으로 목표달성에 적극 동참
9월 20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

서울한강로타리클럽(회장 김범준) 총재공식방문이 지난 9월 20일(목) 그랜드앰배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개최됐다.

장세호 총재의 공식방문을 맞아 지구임원으로는 서울한강로타리클럽 소속의 7지역 이영석 대표님과, 노성현 지구사무차장, 신희섭 로타리 우정교환위원장이 참석하고, 클럽에서는 이동건 전RI회장님(환영사-클럽 방문에 감사)을 비롯하여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 및 초대손님으로 서울장원로타리클럽 양규철 회장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김범준 클럽 회장은 서울한강로타리클럽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장세호 통재님의 목표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로타리재단에 대한 기여와 회원증강 및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서울북악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다양한 주회실시, 신입회원 영입으로 새로운 변화 추구
10월 2일(화) 서울클럽

서울북악로타리클럽(회장 김범생)은 지난 10월 2일(화) 정오 12시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장세호 총재와 박상진 4지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재께서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오랫동안 지구와 클럽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서울북악 로타리클럽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김범생 회장은 환영사로 '서울북악 로타리클럽도 이번 회기 내실을 튼튼히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주회의 다양성과 신입회우 영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튼튼한 클럽 운영을 위해 회우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세호 총재는 자신이 총재가 된 이유는 아마도 '로타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라'는 책임을 지어 주신 것 같다. 로타리안으로 그 뿌리는 너와 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뿌리로 연결 되어 있고, 그 뿌리는 로타리 강령과 네가지 표준 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로타리 강령과 기준으로 우리 자체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전문가가 되자고 약속하자는 서약서를 설명하시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연설로 깊은 감명을 준 총재공식방문 주회였다.

서울문화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PHF 증서 전달 및 신입회원 입회
10월 4일(목) 퍼시픽호텔

서울문화 로타리클럽(회장 박찬희) 총재공식방문주회가 지난 10월 4일(목) 오후 7시에 퍼시픽호텔 미라보 별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장세호 총재와 김학자 10지역대표가 박찬희 회장 등 클럽임원들과 함께 클럽협의회를 가졌으며 클럽위원장들은 위원회별 금회기 목표 및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자세히 보고했고 PHF 10구좌를 약정했습니다.
보고 후 클럽의 애로사항에 대해 총재와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찬희 회장은 클럽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했으며, 장세호 총재는 로타리강령에 대한 의미 등과 특히 "기부를 해야 할 이유 다섯가지(5까)"를 열강 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3명의 신규 PHF에 대해 증서전달 및 뱃지수여 행사와 1명의 신입회원 입회행사가 있었고 이종원 전총재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세호 총재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클럽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장충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클럽활성화의 의지를 확인
10월 4일 팔래스호텔

서울장충로타리클럽(회장 배성례)은 지난 10월 4일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 10층 아이리스룸에서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호 총재와 한태숙 1지역 대표가 참석하였고 장충로타리 창립 회원으로 클럽을 이끌었던 라제훈 전회장, 양주현 전회장이 참석하여 더욱 자리가 빛났다.

이날 행사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 하지 못한 총무를 대신해서 이강혁 부총무의 공식 사회 데뷰로 진행되었고, 로타리송과 웰컴송을 부르고 금주의 노래 시간에는 장세호 총재가 작사 작곡한 '우리는 로타리안'을 박신환 전회장의 멋진 송리딩으로 회원들이 배워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 분위기가 한층 고조 되었다.

배성례 회장의 환영사와 장세호 총재의 로타리의 기본을 생각하게 하는 연설을 들은 후 참석 회원들 모두가 [로타리 사회적 전문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 후 담소를 나누며 식사시간이 이어졌고 식사 후 이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클럽의 명예회원 이기도 한 바리톤 이응광씨의 축가로 분위기 좋게 마무리 되었다.

주회 후 가진 클럽 협의회에서 장충로타리클럽의 역사와 오랜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재단기부와 지구 봉사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 했다. 또한 장세호 총재의 클럽 운영 재정에 대한 의견과 소셜엔터프라이즈 클럽 창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클럽이 다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총재의 클럽 방문으로 격려와 힘을 얻고 클럽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인유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따뜻한 격려와 신선한 아이디어 공유
10월 8일(월) 정오 12시 / 삼원가든 본점

서울인유로타리클럽(회장 정한용)의 10월 9일 오찬모임은, 장세호 총재님의 공식방문으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16명이 참석한 이번 총재공식방문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인유로타리클럽의 역사와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유로타리안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 희망찬 말씀들이 오고 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로타리안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로타리의 청년봉사 단체인 로타랙트 클럽 후원에 대한 말씀,

회원 증강을 위한 총재님의 신선한 아이디어 공유 말씀, 그리고 봉사와 사명에 대한 말씀과 기부문화 정착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장세호 총재님의 연설은 참으로 따뜻했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 기념품으로는 주회 때 쓰는 기념 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매회 주회 때 개회타종과 폐회타종 때마다 총재님 생각이 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길목, 공기도 선선하고 햇살도 좋았던 한 낮, 각자의 바쁜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갖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새신라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위성클럽 창립 추진, 기네스북 등재된 명문클럽으로서 중흥 기약
10월 11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새신라로타리클럽(회장 김득영) 총재공식방문 주회가 지난 10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키친에서 열렸다.

주회에 앞서 장세호 총재와 김중 사무총장은 새신라 임원진과 클럽 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지구와 협력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세호 총재는 격려사를 겸한 특별강연에서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로타리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로타리안 자신부터 행복해야 클럽이 발전하고 봉사의 이상이 높아진다'면서 '전세계 120만 로타리 회원은 전 인류의 0.00015% 안에 드는 선택된 사람들이며, 커다란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항해하듯 이 극소수의 리더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신라는 창립 당시 세계 최다 회원을 보유해 기네스북에 올랐던 명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지구 임원을 배출해 3650지구 발전에 기여한 명문 클럽'이라며 그간의 참여와 봉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원증강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들어 있다'며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회원영입에 좀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영 회장은 12년째 봉사하고 있는 노숙인 급식소 '안나의 집' 봉사자와 휴면회원, 회원 자녀를 주축으로 위성클럽을 만들어 금회기 중 회원수 24명 이상 클럽으로 확대할 것과 재단기부 및 EREY 100% 달성 등 목표를 설명하고 클럽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진력할 뜻을 밝혔다.

장세호 총재는 공식방문 기념으로 '로타리 종'을 전달했고, 김득영 회장은 답례선물을 전했다.

서울남솔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신입회원 7명 증강, 가족같은 분위기로 더욱 알찬 클럽으로 성장
10월 11일(목) 세종호텔

서울남솔 로타리클럽(회장 김서영)은 제586차 주회 및 총재방문 공식주회를 10월 11일(목) 저녁 6시 30분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 로즈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손봉락 서울RC 전회장님이 총재특별대표로 창립한 서울남솔 로타리클럽은 지금은 회원이 많지 않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클럽입니다. 김서영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총재방문주회는, 여러 번 서울로타리클럽과 합동주회를 가졌기 때문인지 '가족 같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장세호 총재의 클럽공식방문을 통해 로타리의 기본 원칙, 로타리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기업의 올바른 사회봉사에 포커스를 맞춰 기업조직을 로타리화 시키려는 총재님의 의지와 열정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진정한 로타리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타리를 바로알고 이해할수있게 쉽게 연설을 잘 하시는 총재님이셨습니다. 회원증강과 재단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해야하는지에 관해서도 총재님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디자인한 기념 주회종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클럽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신용산, 서울옥수, 서울아리랑 로타리클럽 합동 총재공식방문

10월 15일 한우리 한정식

서울신용산, 서울아리랑, 서울옥수 로타리클럽 등 5지역 3개 클럽은 지난 10월 15일 한우리 한정식에서 총재공식방문 합동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주회가 시작되기 전, 3개 클럽의 임원들이 모여 클럽의 현황과 실적 및 추후의 클럽활동 및 봉사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현성 장세호 총재께서는 클럽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옥수로타리클럽의 류인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인 오늘(10월 15일) 총재공식방문행사를 세클럽이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클럽명, 직업 등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초아의 봉사 실천이라는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후에 이어진 아리랑클럽의 류청 회장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감동을 주는 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현성 장세호 총재는 연설을 통해 우리가 로타리안임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늘 읽어 나가는 로타리강령과 네가지 표준의 원칙을 지키며 초아의 봉사를 실천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타리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며 참석한 회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회원들에게 '로타리 사회적 전문가 선언서'에 서명하고 실천하기를 당부하였고, 클럽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타종을 3개 클럽에 선물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서울아리랑 클럽의 정창선 초대회장은 장세호 총재님의 발언에 동의하나,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봉사는 생활필수요소들이 아닌 문화봉사이며 이를 위해 3650지구의 실질적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행사에도 지구의 관심과 회원들의 진실 된 참여로 시각장애인들이 로타리안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총재공식방문주회는 3개 클럽이 함께 초아의 봉사와 로타리안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새강북로타리클럽 창립23주년 겸 총재공식방문

10월 16일(화) 한신대 內 하루밥상

'작지만 내실 있는 클럽'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새강북로타리클럽(회장 안병석)은 지난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한신대학교 內 하루밥상에서 창립23주년 겸 장세호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생신을 맞이하는 회원님의 생신축하시간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며 현성 장세호 총재와 회원을 대표해 창립회원이시면서 가장 연장자이신 서곡 김창섭 회원이 함께 축하케익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창립 주회를 기념하여 성신여대 이현하양, 동국대 강인혜양, 강원대 이세원군, 백석예대 전예솔양 그리고 광운대학교 문세진 군 등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남궁근 9지역대표의 총재 소개 후에 현성 장세호 총재의 연설을 듣는 시간에는 장학생들도 함께 해 더욱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고 로타리안으로서 로타리강령과 네가지 표준을 되새기며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변해야 로타리가 변하고 로타리가 변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고 재단 기부를 해야하는 이유로 다섯가지 "5까"를 말씀하시며 연설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또한 현성 장세호 총재공식방문에 감사하며 이진호, 김지태 회원이 각각 PHF 1구좌를 기부해주셨습니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10월 17일 조선호텔

서울삼청로타리클럽 (회장 원장현)은 지난 10월 17일(수), 07:00 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현성 장세호 총재 공식 방문 주회를 개최했다.
총재공식방문 주회에서는 장세호 총재와 김학자 10지역 대표, 이우식 총재특별대표, 엄경섭 지구 질병치료 및 예방위원회 위원장 등 회원 20명과 내빈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공식방문 주회 후 개최된 클럽협의회에서는 클럽의 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클럽이 발전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신라로타리클럽 총재공식방문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로타리 변화모색에 감동
10월 17일(수) 정오 12시 / 오크우드호텔 이화원

서울신라 로타리클럽(회장 장희정)은 10월 17일 삼성동에 위치한 오크우드 호텔 '이화원'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가졌다. 주회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장희정 회장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총재님의 연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로타리클럽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로타리 클럽이 개선해 나가야할 방법과 로타리안으로서의 역할도 상기시켜주었다. 서울신라로타리클럽 또한 장세호 총재님의 연설에 감동했고, 그에 대한 결심으로 기부를 약속하셨다. 총재공식방문주회를 통해 로타리의 굳건함을 확인했고, 더 많은 회원증강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토론했다. 오고 가는 덕담과 스피치 속에 주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